

II. 2011학년도 1차 선발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②	2. ③	3. ⑤	4. ③	5. ③
6. ①	7. ②	8. ②	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⑤
21. ②	22. ④	23. ⑤	24. ⑤	25. ②
26. ⑤	27. ④	28. ④	29. ②	30. ①
31. ①	32. ③	33. ④	34. ③	35. ③
36. ①	37. ①	38. ②	39. ④	40. ①

1.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⑥의 상위 항목은 '우리말 오용 원인'이다. 따라서 2-(2)에서는 우리말의 오용 원인을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②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 '우리말 세계화의 필요성'은 우리말이 오용되는 사회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⑥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⑤는 글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말 오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의 '우리말 연구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말을 가꾸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3-(2)의 '바른 우리말 교육 자료의 부족'은 우리말이 오용되는 사회적 원인이므로 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서로 바꾸면 상위 항목에 서로 어울리는 내용이 된다.

④ 우리말을 가꾸는 방법과 ⑥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⑥은 삭제하는 것이 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

⑤ 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 즉 '우리말을 사랑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 제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조건을 충족하는 표현의 이해 [정답 ③]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스티커 문구는,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전기용품용 화자로 설정하여 실천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③이다. '온종일 찬바람 쏘기에 제가 지쳐요'에서 전기용품용 화자로 설정한 것과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온종일 찬바람 쏘기에 제가 지쳐요'에서 전기용품용 화자로 설정한 것과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온종일 찬바람 쏘기에 제가 지쳐요'에서 전기용품용 화자로 설정한 것과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 ①, ② 전기용품용 화자로 설정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 ④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거나 전기 절약의 실천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⑤ 전기 절약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3. 굵다듬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⑥]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그런데 ⑥의 앞 문장은 「출」이 마음에 든 시유권이 그것과 짝이 될 만한, 음악을 주제로 한 그림을 의뢰했다는 내용이고, ⑥의 뒷 문장은 이에 마티스가 「출」과 같은 색, 같은 형태의 구상이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그렸다는 것이므로, ⑥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적절하다. 따라서 ⑥은 '그래서, 그리하여'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⑤에서는 앞말에 반대되거나 거슬리는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접속 부사인 '하지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이 아니다.

4.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쓰임 이해 [정답 ④]

<보기>를 참조할 때, '어떤 물건이 얼마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받치다'이다. 따라서 ③(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의 '받치고'는 적절하게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③에서는 이 둘 '받다'의 피동사인 '받히고'로 고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잘못 고친 경우가 된다.

① '실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받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길을 건너다 차에 세차게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받다'의 피동사인 '받히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라는 의미와 하므로 '바치다'로 써야 한다.

⑤ '주춤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여 찾다'라는 의미의 어휘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바치다'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5~8]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육단춘전』

타락한 비속아치의 신의 없는 행동을 비판하며 기성 육단춘의 순정과 절의를 다룬 열정 소설로, 「춘향전」과 비견되는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조선 숙종 때의 재상 이정(李靖)에게는 혈통, 김정(金植)에게는 진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공부하며 우의가 두터워져 장사 시로 돕기를 맹세한다. 그 뒤 김정희는 먼저 급제하여 평안감사가 되었지만 이혈통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도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



아간다. 이에 이혈통이 김정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막대한 돈이 들어와 죽어가고자 한다. 이때 기성 육단춘이 이혈통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하여 이혈통을 살리고 경제적 도움을 준다. 이혈통은 육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 안행어사가 되어 김정희의 약정을 정계하고 육단춘과 행복한 삶을 산다.

5.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이 글의 앞부분에 "너 이름 이혈통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김정희가 이혈통을 대동강에 빠뜨려 죽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사실 이혈통은 육단춘의 도움으로 구출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므로 '대동강'이 작품의 전기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① 사공들에게 이혈통과 육단춘을 대동강 물에 던져 죽이려고 호령하던 김정희가 서러 억울함의 '염행어사 출도' 소리 이후 이혈통에게 살려 달라고 벌고 있고, 이후 대동강에 빠져 죽임을 당하려 가다가 천벌의 벼락을 맞아 버려질 하나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이혈통과 육단춘을 죽일 것을 계획하는 '복소리'가 한 번 울리자 육단춘은 기가 막혀 하고 있다. 그리고 복소리가 두 번 울리자 육단춘은 자지러지게 놀라며, 세 번째 복소리가 울리자 육단춘은 눈을 잃고 사공들도 이혈통과 육단춘이 물에 들어가기로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복소리'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별안간 뇌성박뢰가 일어나 김정희를 벼락 쳐서 시체도 없이 분쇄해 버리자 나흘동안 사공들이 돌아와서 김정희가 천벌로 참혹하게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부분을 통해, 김정희를 내리쳐 '벼락'은 천주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천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혈통이 '연광정'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김정희의 피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이곳을 이혈통의 명예 회복 공간으로 볼 수 있다.

6. 작품 이해를 통한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①]

[A]는 육단춘이, 이혈통과 함께 대동강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단춘이 <보기>와 같이 노래했을 때, '남산에 불이 나니', 이혈통과 자신을 대동강에 던져 함께 죽이도록 김정희가 명령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못다 핀 꽃'은 이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된 처지의 자신(②)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①에서는 '남산에 불이 나니'를 삶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목숨을 잃게 된 급박하고 억울한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몸을 잃어 하노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특정 부분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④]

김정희의 명을 계속하는 세 번째 복소리가 울리자 사공들은 육단춘에게 속히 물로 들어갈 것을 계속하고, 육단춘이 이에 넋을 잃고 하는 말이 [B]이다. 그런데 이렇게 넋을 잃은 상황에서 육단춘은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남구 살려 주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최후를 맞이 사랑하는 사람은 살려 달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육단춘의 태도는 ②'사랑은 자기희생의 다른 이름이다.'이다.

8.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⑥]

①은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양행어사 이혈통이 김정희의 명을 받은 사공들에게 물어 대동강 물에 던지우기 위해 배에 오르며 탄식하는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망양지탄'은 '갈림길에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으므로 ①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 ③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지령 굳게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을 이르는 말인 '금석맹약(金石盟約)'과 어울린다.

③ ⑤은 육단춘이 물에 뛰어들려는 순간이므로,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듬'을 뜻하는 '명재장사(命在須臾)'와 관련이 있다.

④ ⑥은 '양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고함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덮은 듯하다는 것이므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라는 뜻의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경천동지(驚天動地)'와 연결 지을 수 있다.

⑤ ⑥은 신의를 저버린 김정희가 천벌의 벼락을 맞고 시체도 없이 분쇄된 상태를 말하므로, '전생애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어울린다.

[9~12] 지문 해제

기억의 단계에 따른 망각의 양상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중심으로 기억을 살펴보면, 기억은 일반적으로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를 거치는 데, 이 단계를 거치는 도중에 망각이 작용한다. 저장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은 시간에 따른 정보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은 의미의 맥락에 따라 서

로 관련된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없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되는 말과는 정보가 저장될 때 제대로 부호화하여 저장하지 못해 그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말과는 기억의 세 단계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기억의 정보 저장 형태인 음운 부호화 의미 부호가 각 단계에 따라 말과 양상이 다르므로, 기억의 단계에 따른 말과 양상을 고려하면 기억의 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된다.

9. 각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 ④]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중심으로 기억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도중에 말과이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논외할 화제인 기억과 말과는 연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실험을 근거로 시간에 따른 정보의 상실에서 비롯된, 저장 단계에서 비롯된 말과를 설명하고 있다. (다)는 어떤 사람을 지나칠 때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기억을 회복했던 일상의 경험을 들어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말과를 설명하고 있다. (라)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억에 대한 시비를 예로 들어 정보가 저장될 때 처음의 부호화가 빈약하여 왜곡되는 말과인,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된 말과를 설명하고 있다. (마)는 기억의 각 단계에서 음운 부호화 의미 부호가 말과되는 양상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기억의 단계와 관련하여 말과를 고려하면 기억을 높일 수 있다는 시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는 기억의 단계에 따라 말과가 부호화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시술하고 있는 문단이다.

10.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④]

①은 '시간에 따른 정보의 상실'에서 비롯된 말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기>의 ㉓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는 기억 속 정보의 의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단서가 없어서 정보가 인출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③은 처음의 부호화가 빈약하여 그 기억이 왜곡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이다.

11. 내용 이해를 통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바)의 '저장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이 단기적으로만 보존되어 정보는 쉽게 잊게 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어 쉽게 말과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④의 '의미 부호보다 음운 부호가 저장 단계에서 말과가 잘 이루어져서'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학습한 단어가 음운 부호화 의미 부호 중 어느 부호로 기억되느냐에 따라 각 단계의 말과 양상이 달라지므로, 부호

의 차이가 기억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② 부호화 단계에서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부호화하고, 인출 단계에서 의미 부호는 의미의 맥락을 찾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중간에 학습한 단어보다 기억 정도가 높은 처음과 마지막에 학습한 단어는 기존 지식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인출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 그대로 쉽게 인출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의미의 맥락을 찾아야 하므로 단서가 없으면 쉽게 말과된다.'라는 내용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⑤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의 맥락에 맞지 않으면 쉽게 말과되지만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면 쉽게 말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때문에, 시간적 경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학습한 단어가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은, 처음에 학습한 단어가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 문맥을 고려한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 ④]

나비지 선택지들은 모두 의미상 반대 관계인데 ④는 그렇지 않다. 문맥상 '강력'은 '힘이나 영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약'은 '형태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력-빈약'은 의미상 반대 관계가 아니다. ① - 유리 : 이익이 있음. - 불리 : 이익이 아니함. ② - 기억 :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 망각 :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 ③ - 상실 :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 회복 :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음. ⑤ - 단기 : 단기간. - 장기 : 장기간.

[13~16] 지문 해제

지각도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ST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인 '지각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는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인데, 이를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 STP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지각도이다. 지각도는 시장 상황을 도식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속성을 축으로 하여 소비자가 각자 추구하는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을 원으로 나타내고, 소비자들이 기존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인식 또는 이미지를 점으로 표시하여 마케팅 관리자로 하여금 시장 선택에 있어 도움을 주는 마케팅 기법이다.

2011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해설



13.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둘째 문단에서 '지각도는 -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이 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다. 'STP 전략 수립'은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즉 시장 세분화(Segmenting), 목표 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① 첫째 문단과 제2단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상품의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시장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수준에 따라 나뉘는다고 볼 수 있다. ②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다섯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4. 내용의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④]

지각도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브랜드(기존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의 심리와 선호도를 분석해 놓은 것이므로, 지각도가 기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③의 질문은 해결할 수 없다. ①, ④ 지각도는 마케팅에서 STP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지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정보, 즉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 소비자 각자가 추구하는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⑤ 이는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하고 있다.

15. 내용 이해를 토대로 한 자료의 분석적 판단 [정답 ④]

F 자동차는 A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가이면서 개인 중심적이고 파시적인 디자인이라는 유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F 자동차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위치한 1번과 같이 규모가 큰 시장을 목표로 삼을 것이므로 현재 1번 시장안에 위치하고 있는 A 자동차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② 1번은 디자인 면에서는 '파시적'이면서 가격은 저가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1번의 이미지를 많은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시장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③ B 자동차와 E 자동차는 둘 다 가족중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 B 자동차가 E 자동차보다 조금 더 고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 자동차가 가격을 낮추면 B 자동차와 접충하고 있는 시장이 겹치게 되어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④ D 자동차가 4번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토축으로

는 오른쪽으로, 새로축으로는 위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④처럼 말할 수 있다. ⑤ 3번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가격 면에서는 저가물, 디자인 면에서는 가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3번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6.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문맥상 ㉠'상용'은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 '진도(顛倒)'는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① 배척(背馳) : 서로 반대로 되어 어긋리거나 어긋남. ② 상반(相反) :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남. ③ 배반(背反)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 ⑤ 모순(矛盾) :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17~20] 작문 해제

(가) 박인로, 「자경가(自警歌)」
조선 인조 때 쓰인 연시조로, 제목(스스로를 경계하는 노래)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경계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제1연에서는 명덕(明德)을 닦지 않은 새 태를, 제2연에서는 팔덕(八德)에 이르는 바른 길을 가지 않은 새태를, 제3연에서는 훈막한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을 표현하고 있다.

(나) 신홍, 「감사(感事)」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 자연과 시시로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고 있는 한시이다. 벼슬살이와 귀양살이를 대조하여 활동과 휴식으로 보고, 귀양살이 중이라 행동이 구속되고 명예가 손상되어도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사니 몸과 마음은 오히려 여유로워서 그윽한 곳을 찾거나 시서를 벗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 얻고 잃음을 따지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므로 초연한 자세로 귀양살이라도 전원생활 같이 마음 편히 살겠다고 하고 있다.

(다) 정약용, 「득월담기(得月臺記)」
사사로운 욕심과 혼자만 차지하려는 마음을 없애 '득월'의 경지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아름다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 하는데, 물건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얻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예

쓰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화 만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 있는 달인데, 달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이 얻어 흔하게 여기므로 그것의 아름다움에 만족해하지 않는다며 달의 참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7. 작품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 파악 [정답 ⑤]

- (가)에서는 '도리에 맞는 삶'을, (나)에서는 '자연과 시를 벗하는 삶'을, (다)에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린 삶'을 각각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모두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다. ⑤가 할 수 있다.
① (가), (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 (다)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를 엿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오히려 부정적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유배 생활을 초연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가)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이 없다.

18. 유사한 의미의 시어 파악 [정답 ①]

- ㉠은 문맥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도(道)'의 길을 의미한다. ①은 보자, 중장에서 '길' 또한 옛 성현들이 갔던 '학문 수양'의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둘은 의미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⑤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으로서의 길을 의미한다.
④ '방향 또는 지향'을 의미하는 길이다.

19.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 <보기>에서 (나)는 일단 유배 생활조차 순리에 따라 자연을 즐기며 사는 전원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세상 운수는 결코 순환하나니'는 자연의 순환에 벗어난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화복이 돌고 도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현실의 분우함을 견디려는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외물에 거러짐이 없는지'라는 유배 생활 속에서도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다.
② '행동을 얽매어도'와 '말에는 손상돼도'는 유배 생활로 인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명예가 손상된 것을 나타낸다.
③ '그윽한 곳'은 지팡이 가죽신 자림의 화자가 초연히 남은 생애를 보내고자 찾는 곳이다. 따라서 '그윽한 곳 찾은'은 자연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열고 있는 것을 어찌 다시 말하랴'는 자연의 순환처럼 삶의 고통화복도 돌고 도는 것인데 어찌 얻을 것과 잃는 것에 연연하였는가 의미이므로, 외적 상황에 초연한 화자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작품 내용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④]

- (다)의 둘째, 셋째 문단을 보면 하늘에 있는 물건 중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예로부터 달이 하늘에 있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기 때문에 본체만체하며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의 참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과 혼자만 차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달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무릇 사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며 일반적인 현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둘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 천과 만물 중 하늘에 있는 물건이 가장 아름답다며 글쓴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늘에 있는 물건이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달이 가장 아름다움을 해와 별, 구름, 안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21~24] 작품 해제

형석, 「이우를 위하여」
동생에게 보내는 형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소설은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1970년대 당시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벌주는 영재 페가리의 모습은 폭력적인 소수가 대다수의 약자 위에 군림하는 형태로, 온갖 글자와 규제를 통해 획일적인 삶을 강요했던 당시 독재 정권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런데 영재 페가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제 비겁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다수가 용기를 내어 저항할 때 폭력적인 소수는 힘을 잃는다는 내용을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편지 형식을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21.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④]

- (가)와 (나)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서술자이다. 따라서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는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① (가)에서 '노장'은 서술자인 '나'에게 폐쇄와 공포의 상징이 되고 있다.



- ③ 한때 전쟁터였던 곳인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한 섬세한 묘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앞부분의 줄거리 부분과 (가)의 앞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작품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 (가)와 (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되었으므로 (나)의 사건이 (가)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①, ② 또한 그 예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 들어갔지, ~ 떠났지' 등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되어 있다. ②.
그리고 (가)에서는 어떤 시절 '나'가 겪었던 공포의 기억과 그 기억을 떨쳐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서술되어 있고, (나)에서는 '그 애들'로 지칭되며 '나'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를 내어 바꾸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③. 따라서 (가)에서의 갈등 양상이 내적인 것이라면, (나)에서는 외적 갈등이 서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그런데 (나)가 (가)에서 보이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서술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④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23.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④]

- ①은 상황적으로 영재가 주변의 기세에 눌려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종화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 바로 앞의 '종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재를 바라보고 그 예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에서처럼 상대명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만 알 수 없다.
② ㉡ 앞뒤의 내용인 '종화가 대견한 것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 떠들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내가 가졌다 해'라는 말투에서 상대에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따위 장난'이라는 부분에서 항의의 내용이 선성남을 모욕하는 상태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종화'의 행동에 항의하는 방향에는 ㉡이 갈라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은 '나'의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은 '종화'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의 말이다.

24.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 이 글에서 '나'는 ㉠을 경험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아픔을 푸는가 하면 무서운 기분이 가시질 않는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의 상태를 <보기>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은 '나'가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

- 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배당했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나'는 ㉡의 경험 때문에 <보기>에서 말한 '트라우마'(정신적 장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② ㉡의 약물은 ㉡의 경험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트라우마로 인해 겁쟁이었던 '나'는 '아름다운 분'으로 인해 성숙한 아이로 키워졌다고 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분'은 '나'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와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에서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나'의 감정 상태가 몹시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25~28] 지문 해제

점자 표기 체계의 특징과 구조

점자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짚어 가며 설명한 후, 한글 점자의 특징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자는 한 칸에 들어 있는 6개의 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기호 체계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점자는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는데, 6점식 점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지만 점자도 일반 글자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르다. 한글 점자는 6개의 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점형의 수가 63가지로, 자음, 모음, 받침 자음을 해당하는 각각의 점자 기호를 익히고 그것을 조합해야 점자로 쓰인 한글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25. 문단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④]

- (나)를 보자. (나)도 (가)와 마찬가지로 '점자 체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나)는 점자가 세계 공통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언급하고 있는 문단이다. 하지만 한 칸이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6점식 점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나라마다 점자 체계가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의 중심 화제를 '각 국 점자 체계의 다양성'이라고 밝히고 있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26. 내용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 (다)를 보자. 점자는 대체로 각 나라의 문자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해당 문자의 특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님을 중국이 점자를 통해 알 수 있다. 한자는 표의 문자인 데 비해, 중국이 점자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자는 각 나라의 문자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 문자의 특성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①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나)의 '하지만' 일반 글자가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기초하고 있음이 ~ 해당 언어의 점자를 배워야 한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라)의 6개의 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점형의 수는 63가지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7. 정보의 이해를 토대로 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④]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후 '우유 드시죠'를 점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라)를 보면 첫소리 자리에 쓰이는 기본 자음자는 14개, 기본 모음자는 10개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마)를 보면,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점자의 양을 줄이기 위해 표기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유 드시죠'는 8개의 점자로 이루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

- ① '두유 드시죠'에 해당하는 점자이다.
- ② '우유 드시죠'에 해당하는 점자이지만 (마)에서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생각한다는 내용에 위배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두유 드시죠'에 해당하는 점자이다.
- ⑤ '우유 사시죠'에 해당하는 점자이다.

28.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한 유사 사례 적용 [정답 ④]

㉠은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을 별도의 점형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즉 '가'와 '각'을 점자로 쓸 경우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둘 다 'ㄱ'과 'ㄱ'이 되어 어느 뜻인지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④는 그렇지 않다. ④는 받침의 편의를 위해 음운 규칙(구개음화)에 의해 받침이 같아진 것으로 ㉠과 같이 본래적인 형태가 점자 표기 시 구별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29~32] 지문 해제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요인과 거대화의 한계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요인을 밝힌 후,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더라도 동물의 몸집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대부분의 생물은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천적이 줄어들고,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먹잇감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데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대기 중 산소 농도도 크게 영향을 주며 서식지 면적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더라도 동물의 몸집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물의 크기는 세로 수, 성장 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1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해설



'나'이고, ⑥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다'이다. 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라.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다.

[33~36] 지문 해제

문드리안 예술의 특징과 의의

문드리안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의 예술이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문드리안은 미술이 수학적기구를 바라보 3가지 기본 색과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만을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배치하면서 '불평등한 균형, 그러나 평온한 대칭'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직선과 수평선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아 두 선들을 서로 직렬한 각도에서 교차시키면 역동적인 평온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문드리안은 가장 주된 색과 선만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문드리안은 최초로 비대칭적인 것에서 균형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그림으로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의 애정,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궁정적인 절제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33.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④]

넷째 문단의 '이전의 미술가들은 ~ 대칭은 하나의 계층적 질서로서 복잡과 지혜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문드리안은 대칭 개념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문드리안이고(③), 구성 요소의 복잡과 지혜 관계를 통해 대칭적 질서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문드리안 이전의 미술가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둘째 문단의 '3가지 기본 색과 기본 문으로 색을 제한한 것도 분절적인 요소를 제외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셋째 문단의 '문드리안은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주된 색과 선만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이거나 특수해서 갈로 갈 교란이 불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제거한, 어떠한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둘째 문단의 '문드리안은 수직선이 생기를, 수평선이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이 두 선들을 서로 직렬한 각도에서 교차시키면 '역동적인 평온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

29.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이 글에서는 동물이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데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더라도 동물의 몸집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 또한 밝히고 있으므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30. 내용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①]

둘째 문단의 '양서류나 파충류와 같은 냉혈 동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몸집이 더 커진다. 몸집이 커지면 외부 열을 차단하기에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①'열대 지역의 개구리보다 온대 지역의 개구리가 몸집이 커야 생존에 유리하겠군.'이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마지막 문단의 '~ 대왕고래는 부력 덕분에 수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만약 육지에 올라온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의 '대형 초식 동물인 들린 포식자들도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마련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④ 둘째 문단에서 북극해 랭스 섬에 살던 매머드의 크기가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매머드의 65%에 불과했다는 예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⑤ 식단기에 살던 바르벨레가 고양이만 했던 까마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두 배 높았기 때문인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31. 자료에 대한 반증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그에 맞게 신체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거대육우는 일반소와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반응이다.

- ② <보기>에서 몸집이 큰 생명체는 작은 생명체보다 대사를 이 빨리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료비용이 거대육우의 당저에 비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③, ④, ⑤ 이 글이나 <보기>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없는 반응이다.

32. 보조사 '-만'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 ④]

문맥적으로 ④의 '-만'은 '알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대한'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⑤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보기> 중 ⑥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34. 내용 이해를 통한 자료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문드리안은 자연의 형상을 소거하고 새로운 추상으로 나아갔는데, 3가지 기본 색과 기본 문으로 색을 제한하며, 수직선과 수평선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아 이 두 선들을 서로 직렬한 각도에서 교차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보기에 가장 주된 색과 선만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③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5. 특정 부분의 내포적 의미 파악 [정답 ④]

둘째 문단에서 문드리안이 삼원색과 무채색 등을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배치하였고, 그의 격정형 그림들도 서로 비추어 보이지만 각각은 정확한 계산된 원리에 따른 그림이라는 언급 등을 통해 ㉠은 선과 색을 활용한 새로운 추상으로 예술미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36. 문맥상 교제 가능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①]

- ① '간주(看取)되다'는 '상대,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여겨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간과(看取)되다 : 속내가 꿰뚫어 알아차려지다.
- ③ 표명(表明)되다 : 의사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다.
- ④ 제안(提案)되다 : 의안으로 제기되다.
- ⑤ 성명(聲明)되다 : 부리위하여 바라는 바이다.

[37~40] 작문 해제

(가) 김광균, 「노신」

시를 쓰는 것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서민 먹은 화자는,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며 고통을 가해 오는 생계의 부담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비굴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한 평생 신념을 지키며 살다 간 중국의 문인 노신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즉, 이 시는 가난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 극복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나)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이 시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나다'로 시작하고 있다. 이때 '수수밭'은, '겨녁만큼 거문 것'으로 별이 땅을 들여다 보아 갈 한쪽도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의 화자에게는 독립 너머 길 끝에는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즉 시인의 삶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시인의 삶을 살아온 화자이지만 삶을 오르면서 여러 자연물

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통해 고난의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을 되찾게 된다. 그래서 화자의 '망속 수수발'은 마지막 행에서 '완해진다'는 내용이다.

(다)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화자는 몸이 서늘리 나무를 하다 보면 손등이나 다리가 쪼그리고 금회 걸뚝거리며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저물면 날씨가 추워져 불을 지핀다. 아궁이 속 나무 중 유난히 활활 타는 홍이 박힌 나무를 보며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심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는 사는 자체가 서늘 자신의 삶도 활활 타는 홍이들처럼 불길에 타고 흰 계가 되어 부추밭에 뿌려짐으로써 흰 부추꽃으로 활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이 시는 일상 속에서 서늘과 나약하게 나아가는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열정적인 삶을 소망하는 작품이다.

3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삶과 가장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화자가 '노신'의 삶을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에서는, 시인의 삶 속에서 절망적 심정이었던 화자가 산행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의지와 희망을 되찾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자신의 서늘과 나약함에 지친 화자가 상처받은 나무인 '홍이 박힌 나무'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열정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①)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화자가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수동적인 삶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화자가 시를 쓰는 것과 가장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신을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⑤ (가)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노신'을 생각하며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노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므로, ⑤는 (가)와도 관련 없는 내용이다.

38. 시어의 비교를 통한 작품의 감상 [정답 ②]

(가)의 '돌팔매'는 '무수한 손에 땀을 얻어맞으며'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겪는 현실적 시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의 '도끼질'은 나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면에서 나무가 겪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가)의 '돌팔매'가 (다)의 '도끼질'과 달리 현실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감상 내용이 아니다.

① (가)의 '상해 호마로 어느 잎갈목'은 화자가 노신의 삶을 생

각하며 떠올린 공간이고, (나)의 '수수발' 또한 '내 맘속'에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모두 화자의 내면에 떠오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등불'은 뒤에 나오는 노신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화자는 등불을 켜는 행위를 통해 노신을 떠올리고 있고, 화자에게 있어 노신은 등불과 같았던 존재로 화자의 삶에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의 '홍이 박힌 나무'는 마지막 연의 '내 삶의 무거운 홍이들도 불길에 타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서늘과 나약한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완해진다'는 화자가 산행을 하며 깨달은 바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다)의 '완한 인생'은 나약하고 서늘 화자의 삶이 열정적인 삶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둘은 모두 화자가 지향한 바가 상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몇 번 머리를 흔들고는'는 산행을 하기 전 압울한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회의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다)의 '연세중이나 사는 일이 서물지 않을까'는 자신의 나약하고 서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회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시 창작 과정의 추리를 통한 작품 이해 [정답 ④]

'수미상관'이란 첫 연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운율이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수법이다. 따라서 '시적 안정감을 위해 수미상관의 구조로 전개한다.'라는 ④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① '마음이 또 수수발을 지나다 미워질 것 더 없어 / 되란으로 칸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물녘의 석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② '바람은 자꾸 동박을 때리고, '푸른 것들이 어찌를 꼭 진다 울라가라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 '바람은 자꾸 동박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 암처럼 깎다' 등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

⑤ '저녁만큼 저문 것'이라는 어둠의 이미지와 '완해진다'라는 밝음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0. 특정 부분의 발상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은 사람이 아닌 것('등불')은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속삭이린다')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인 의인법을 활용한 표현이다. ㉡을 보자. '돌이오는 길에 걸뚝거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길'은 사람이 아니므로 걸뚝거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뚝거리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 또한 의인법을 활용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